

2024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국어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①	5	④
6	③	7	③	8	②	9	①	10	②
11	④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①	20	⑤
21	④	22	③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⑤	28	①	29	⑤	30	④
31	⑤	32	③	33	③	34	②	35	②
36	①	37	⑤	38	②	39	②	40	⑤
41	⑤	42	③	43	②	44	③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쌀의 약 7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라고 물으며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그 후 전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청중을 고려해 전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발표 내용을 중간중간에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⑤ 발표자가 자신의 소감을 밝히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방식을 파악한다.

5문단에서 [그림 2]와 [그림 3]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찬밥의 노화된 전분이 국물을 흡수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호화된 전분과 노화된 전분을 비교하여, 국물에 찬밥과 갖지은 밥을 말아 먹을 때 맛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그림 1]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전분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분자인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모양을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② 3문단에서 [그림 2]를 보여 주며 전분이 호화될 때 탄수화물 분자 사이의 간격과 분자의 모양에 생기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3문단에서 [그림 1]과 [그림 2]를 나란히 보여 주며 호화 이전과 이후 전분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⑤ 6문단에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차례로 보여 주며 라면 국물에 찬밥이 어울리는 이유를 호화 및 노화의 원리와 종합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1’은 라면 국물에 갖지은 밥이 어울릴 줄 알았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밝히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 3’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수정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밥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했으므로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는 먹다 남은 떡을 바로 얼리는 것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일 것 같다고 했으므로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추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학생 3’은 삼투압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를 기대했지만 간단히 언급해서 아쉽다고 했으므로 기대했던 것과 관련해 발표에서 아쉬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학생 2’는 노화를 늦출 때 온도와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 외의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고, ‘학생 3’은 갖지은 밥을 라면 국물에 말 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으므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제시된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의 추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의 목적을 이유로 들지 않았고, 설명 보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학생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도우미를 통한 선생님의 부담 줄이기를 제시된 방안의 기대 효과로 들어 ‘학생 3’의 발언에 동의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건의를 받는 쪽의 부담을 예상되는 문제로 드러내어 부담을 줄일 방법에 관한 논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 ‘학생 3’의 발화를 영상의 내용 측면과 활동 측면이라는 두 범주로 정리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쓰기’라는 과제를 환기하며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학교생활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학생 3’은 [A]에서 ‘나도 그 영상이 유익했어.’라는 말로, [B]에서 ‘그래.’라는 말로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한 후, [A]에서 자신이 읽은 신문 보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B]에서 ‘근로 계약서는 직업을 가질 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으로 근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들었어.’라는 말로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2’는 [A]와 [B] 모두에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또한 [A]에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는 대안을 덧붙이고 있을 뿐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 2’는 [A], [B] 모두 질문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③ ‘학생 3’은 [A], [B] 모두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재진술하고 있지 않다. ⑤ ‘학생 3’은 [A], [B] 모두에서 상대방인 ‘학생 2’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방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나)의 2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인 우리 반 친구들이 퀴즈를 좋아한다는 특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학생 3’은 퀴즈 프로그램의 참여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상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② (가)의 ‘학생 3’의 첫 번째 발화에서 아쉬움의 이유로 언급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내용은, (나)의 1문단에서 건의문 작성의 동기로 제시되어 있다. ④ (가)의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를 제안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고려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유용성

으로 이어지고 있다. ⑤ (가)의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퀴즈 프로그램과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 각각에 대해 그 구체적인 역할이 추가되어 제시되었다.

7. [출제의도] 건의하는 글의 내용을 점검한다.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3문단에서 제시된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힘드실 테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생님의 부담이므로, ①의 근거로 제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어려움은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상에서 대처 방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영상 시청 후에 이어지는 추가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해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퀴즈 프로그램과 모의 근로 계약서 쓰기를 언급해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반 모두에게 기대 효과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해 건의 내용이 다수를 위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친구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해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8. [출제의도] 초고에 반영된 필자의 생각을 파악한다.

ㄱ. 1문단에서 저상 버스와 여러 언어로 된 누리집의 공통점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의 내용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ㄴ. 2문단에서 장애인 전용 시설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ㄴ. 3문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하는 여러 요인들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종류를 나누고 있지 않으므로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ㄷ. 4문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제시되어 있지만, 국외의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의 내용을 생성한다.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 내용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로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아직 저조하고, 새로운 시설이나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 독자’는 학생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에 적절한 내용이 되려면 문제점 두 가지와 관련지어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언급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학교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보자.’는 앞 문장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언급했다. 따라서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하여 학생이 지녀야 할 자세를 언급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서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③ ‘단기간의 손익만 계산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은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로 지적한 내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지 않

다. ④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는 서술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하는 자세’는 학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로 볼 수 있지만,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초고 수정을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가)에 언급된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익을 얻는 대상은 휠체어 사용자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다. 이는 연령, 질병 요인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언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가)의 해당 내용을 통해 이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고려 요인으로 추가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장애 유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는 2문단의 내용을, (가)에 제시된 휠체어 사용자가 리프트를 사용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강할 수 있다. ③ (나)의 통계 자료는 국내 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와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언어에 따른 인지적 차이를 고려하므로, 4문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로 추가할 수 있다. ④ (다)의 레버식 손잡이는 위에서 누르기만 해도 작동하므로 힘이 약해도 사용할 수 있는 조작이 용이한 제품에 해당한다.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 바닥은 거동이 불편해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한 환경이다. 이를 3문단에 사례로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다)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통해 매년 1조 7천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4문단에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관형사절의 두 가지 유형에 따른 특징을 이해한다.

두 번째 유형의 관형사절은 어떤 체언 앞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절 뒤에는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체언만 올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의 ‘내가 읽은’은 ‘책’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② ‘그는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 사실을 안다.’의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은 문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성분을 갖추고 있다. ③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다.’와 ‘우리가 학교로 돌아온’을 비교하면 서술어의 형태가 ‘돌아왔다’에서 ‘돌아온’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의 ‘이마에 흐르는’에서 ‘땀’이 생략되었다.

12. [출제의도] 관형사절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파악한다.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에서 보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을 가정하면 ‘철수가 된 학급 회장’의 형태가 된다. 보어가 생략되고 주어와 ‘되다’ 앞으로 이동하면,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던 문장 성분이 더 이상 주어로 쓰이지 못하고 보어처럼 해석된다. 따라서 보어가 쓰인 문장을 관형사절로 만들 때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사절의 보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형사절을 만들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가 ‘영희가 철수를 불렀다.’에 관형사절로 들어가면,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대상인 ‘철수’를 포함한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영희가 학급 회장이 된 철수를 불렀다.’가 된다. ② ‘철수가 학급 회장이 되었다.’가 ‘영

희가 학급 회장을 불렀다.’에 관형사절로 들어가면,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대상인 ‘학급 회장’을 포함한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영희가 철수가 된 학급 회장을 불렀다.’가 된다. ③ ‘학급 회장이 된’에서 ‘학급 회장이’는 ‘되다’ 앞에 있으므로 관형사절의 보어이다. ⑤ 학습 과정을 통해 관형사절을 만들 때 주어와는 달리 보어가 생략되면 원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이해한다.

‘일찍이’는 부사 어근 ‘일찍’에 접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단어로, 접사 ‘-이’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마음껏’은 명사 어근 ‘마음’에 접사 ‘-껏’이 붙어 부사로 바뀌었다. ③ ‘가리개’는 동사 어근 ‘가리-’에 접사 ‘-개’가 붙어 명사로 바뀌었다. ④ ‘높이다’는 형용사 어근 ‘높-’에 접사 ‘-이’가 붙어 동사로 바뀌었다. ⑤ ‘슬기롭다’는 명사 어근 ‘슬기’에 접사 ‘-롭-’이 붙어 형용사로 바뀌었다.

14. [출제의도] ‘읽고’의 발음을 이해한다.

‘읽고’의 발음은 [일꼬]인데, 첫째 음절의 종성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둘째 음절의 초성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첫째 음절의 종성은 [ㄹ]로 발음되는데, 일고[일고]의 발음을 참고할 때 종성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종성 [ㄹ] 뒤에 ‘-이’ 연결된다는 것은 된소리되기가 반드시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므로 ㉠에는 ‘조건이 아니다’가 들어간다. 그런데 된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첫째 음절 종성의 두 자음 중 뒤의 자음 ‘-이’ 뒤의 자음 ‘-ㄱ’을 만나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둘째 음절의 초성이 [ㄱ]로 발음되므로 ㉡에는 [ㄱ]이 들어간다. 그 후 첫째 음절 종성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면 첫째 음절 종성이 [ㄹ]로 발음되어 일고[일꼬]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에는 ‘있다’가 들어간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 주격 조사를 이해한다.

㉠은 자음 ‘ㄹ’으로 끝나는 체언 ‘마음’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났고, ㉡는 자음 ‘ㄹ’로 끝나는 체언 ‘겨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났으므로 ㉠과 ㉡는 ㉠에 해당한다. ㉢은 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어미’ 뒤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은 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줄기’ 뒤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과 ㉡는 ㉢에 해당한다. ㉤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 ‘고’로 끝나는 체언 ‘孝道(효도)’ 뒤에 주격 조사가 ‘ㅣ’가 나타났으므로 ㉢에 해당한다.

[16~20] (과학) Steven Yantis, 「감각과 지각」

이 글은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달팽이관의 안쪽에는 기저막과 털 세포가 존재한다. 기저막은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최대 진동하는 부위가 다른데, 이에 따라 기저막 위에 있는 털 세포는 그 위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게 된다. 털 세포의 반응에 따라 해당 털 세포와 연결한 신경 섬유가 흥분하게 되면 신경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는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결국 대뇌는 신경 섬유가 기저막의 어떤 위치에 있는 털 세포와 연결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게 된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5문단에 따르면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신경 섬유를 통해 기저막의 안쪽 부위와 연결된다. 기저막의 안쪽 부위일수록 낮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반응하므로 1차 청각 피질에서 얼굴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낮은 소리로 지각되는 신경 신호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기저막은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린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게 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4문단에 따르면 털 세포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도록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에 따라 신경 섬유가 흥분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털 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② 5문단에 따르면 신경 섬유의 흥분으로 신경 신호가 생겨난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 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진다. ⑤ 3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털 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의 이유를 추론한다.

3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털 세포가 초당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는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 세포가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며,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가 초당 떨리는 횟수가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 따르면 개별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일정 수준까지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대응되는데, 이는 개별 신경 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결정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대뇌로 전달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액으로 전달되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19.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에 따르면 그래프는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여러 주파수의 파동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즉 그래프에서 200 Hz에 대응되는 테시벨은,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되었을 때 200 Hz의 파동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에서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이다. 그래프에서 400 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의 변화량이 감소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이 진동하는 수준은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낮은 주파수에 대응되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그래프에서 100 Hz에서 지각 가능한 최소 수준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차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문단에 따르면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는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두 파동의 주파수 간격이 멀어지면 두 파동에 따라 기저막에서 최대 진동하는 부위도 멀어져 차폐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⑤ 그래프의 정점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400 Hz라는 것은 차폐를 일으키는 파동이 400 Hz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파동에 반응하는 털 세포가 많이 접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경유하여’는 ‘거쳐 지나’란 뜻으로 ‘거쳐’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답습(踏襲)하여’는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하여’라는 뜻이다. ② ‘담당(擔當)하는데’는 ‘어떤 일을 맡는데’의 뜻이다. ③ ‘제시(提示)한다’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한다’라는 뜻이다. ④ ‘형성(形成)하여’는 ‘어떤 형상을 이루어’라는 뜻이다.

[21 ~ 25] (인문) 박송화, 「새롭게 읽는 서양 미술사」

이 글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의 발생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중반, 엄격한 고전주의 양식의 부활을 꾀하며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한다. 신고전주의 미술은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하여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구도, 매끈한 표면 등의 형식적 특성을 추구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신화나 역사를 주제로 미술에 사회적 교훈을 담고자 했다. 한편 19세기 전반,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낭만주의는 헤르더의 사상을 출발점으로 한다. 낭만주의는 불안, 공포 등의 감정이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을 주제로 하고,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감정을 표출했다.

2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는 두 미술 사조의 발생과 특징을 설명한 글로, 각각의 등장 배경을 빈켈만과 헤르더라는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신고전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한 미술 사조인 반면, 낭만주의는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여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 준 미술 사조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1문단과 5문단에서 각각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각 미술 사조의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서 빈켈만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였고, 5문단에서 헤르더가 고대 그리스 미술에 대한 빈켈만의 주장에 관하여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 학자가 주장한 미학 이론의 변화 과정에 대해 제시한 부분은 없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4문단을 통해 신고전주의 미술은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고,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을 통해 신고전주의 미술이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을 통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미술에 사회적 교훈을 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을 통해 신고전주의 미술이 뚜렷한 윤곽선, 붓 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을 통해 낭만주의 미술은 역동적인 구도의 특징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를 특징으로 한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상적인 형식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⑤ 6문단을 통해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와 같이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주제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은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며, 아름다운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사물의 아름다움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은 아름다움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것에 대해 감상자가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은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아름다움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에 대한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다. ㉤의 관점에 따른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사물이 조화와 질서를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⑤ ㉤은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감상자가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에 대한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빈켈만은 그리스 미술에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절대미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켈만이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본 에피카르모스의 관점은 아름다움의 상대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헤르더의 관점과 유사하다. ②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다. ③ 사물의 아름다움이 그것의 적합성에 있다고 본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사물마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의 아름다움이 시대를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이는 소크라테스의 관점과는 다르다. ④ 빈켈만은 그리스 미술의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을 ‘고귀한 단순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감각적 미라고 정의한 스토아 학파의 관점과 유사하다.

25.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밑줄 친 ㉠에서 ‘가지다’는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선택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은 ㉤이다.

[26 ~ 30] (사회) 정하중, 「행정법총론」

이 글은 행정 행위의 부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관은 행정 행위에 부가된 종속적 규율로,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법원이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속 행위만 가능하다는 견해,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견해, 모든 부관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기속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 행위이다. 따라서 기속 행위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행정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답풀이] ②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

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해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③ 주된 행정 행위는 존속시킨 채 부관만 따로 취소하면 부관의 효력만 소멸된다. ④ 부담으로 인해 행정 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정지 조건이나 시기를 통해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기한은 ‘○월 ○일’같이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로 나뉜다. 따라서 시기와 종기가 모두 붙은 행정 행위에서, 시기와 종기 사이의 기간은 행정 행위의 존속 기간이다.

[오답풀이] 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은 주된 행정 행위와 더불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해제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시기는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이다. ④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28. [출제의도] 글에 생략된 전제를 파악한다.

첫 번째 견해는 재량 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이 부관 없이 행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재량 행위에 부관을 붙일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 행위는 기속 행위이고,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 행위는 재량 행위이다. 따라서 부관의 효력과 기속 및 재량 행위의 구분은 관련이 없다. ③ 첫 번째 견해는 위법한 부관이 부과된 경우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재량 행위인 주된 행정 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재량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 행위이고, 첫 번째 견해는 부관을 붙일지 여부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청의 재량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행정 행위의 내용 선택에 관한 것이므로, 부관을 취소하는 것과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이 없다. ⑤ 첫 번째 견해는 재량 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부과된 경우 법원이 재량 행위인 주된 행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법원이 재량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은 기속 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속 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 행위이므로, 기속 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해당 부관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경우 ㉠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재량 행위에 위법한 부관이 붙은 경우, ㉠은 재량 행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② ㉡는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행정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된 행정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는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는 재량 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원이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

는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당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부관의 효력만 소멸하고 주된 행정 행위인 숙박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하지만 해당 부관은 건축 허가에 붙은 부관이고 숙박 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에 붙은 부관이 아니므로, 부관의 효력이 소멸한 것과 사용 승인의 효력은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부관을 조건으로 보아, 갑의 담장 미설치로 숙박 시설 건축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했다고 보면 갑의 건축 행위가 위법해지므로 갑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이 부관을 부담으로 보면, 갑의 담장 미설치에도 불구하고 숙박 시설 건축 허가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갑에게 유리하다. ② 갑이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해당 부관은 위법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갑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③ 법원이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부관만 취소되었다. 부관만 취소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소멸하지만 주된 행정 행위인 숙박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⑤ 부관은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에 종속되므로,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 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부관에 따른 갑의 담장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31 ~ 33] (고전 시가) 이휘일, '전가팔곡'

이 시는 1664년에 이휘일이 지은 연시조로서 속세를 떠난 화자가 농촌에서 노동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긍정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작품의 구조는 제1수의 서사에 해당하는 '원풍', 제2수부터 제5수까지의 춘하추동에 따른 사계절, 제6수부터 제8수까지의 '새벽 - 낮 - 저녁'에 해당하는 '신 - 오 - 석'으로 나뉜다. 지문에 제시된 제1수는 초야(전원)에 묻혀 살며 풍년을 기원함을, 제6수는 새벽에 일어나 밤사이 자라난 곡식을 보러 밭으로 나간 화자의 기대감을, 제7수는 고생하는 농부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낮의 모습을, 제8수는 농사일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는 저녁의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6수부터 제8수까지의 각 증장에 '-자꾸나'라는 청유형 종결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농사일과 관련한 행동을 권유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반어는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어진 지문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지문에 쓰인 표현 중 '히'와 '풀'에서 색채를 떠올릴 수는 있으나, 색채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시적 대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③ '지빠귀', '이슬', '풀', '서산', '들'이 자연물에 해당하지만, 이 중 의인화되거나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소재는 없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나 이의 나열은 찾아볼 수 없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제6수에서 화자는 '밭'의 농작물이 밤사이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고자 노력을 기울이며, 제8수에서는 점심때에 맞추어 '보리밥'과 '풀로 끓인 국'을 직접 맛보아 준비하는 정성을 기울여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이고자 한다. 밭의 농작물이 자라는 것과 농부들이 배불리 먹는 것은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제1수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공통점은 화자가 '년풍'에 해당하는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이다.

[오답풀이] ① '밭'과 '농부들'은 화자가 관심을 갖는 외부 대상이지만, 화자와의 교감 여부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제1수에서 화자는 '바깥일'에 대해 모른다고 하여 속세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② '밭'은 농작물의 성장이 나타나는 공간이지만 생명력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농부들' 또한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밭'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농부들'은 화자에게 애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으로서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④ '밭'과 '농부들'은 농촌을 이루는 공간과 주체라는 점에서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둘을 통해 화자가 내면 의식에 집중하기보다는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적절하지 못한 진술이다. ⑤ '밭'과 '농부들'은 화자의 보살핌을 받는 대상으로서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성을 지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제8수에서 화자가 '호미를 둘러 메고 들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저녁 시간에 하루의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보기>에 따르면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것은 '새벽 - 낮 - 저녁'의 시간을 모두 포함함을 의미하지만, '호미를 둘러 메고 들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저녁에만 해당하므로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을 자연물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6수의 '지빠귀'는 새벽이 왔음을 알려주고, 제8수의 '서산에' 지는 '히'는 저녁이 왔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연물의 모습이 각각 새벽과 저녁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7수에서 화자는 점심에 '제때에' 맞추어 농부들에게 먹일 음식을 직접 맛보며 준비하고자 하며, 이는 낮 시간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을 표현한 것이다. ④ 제8수의 '풀 끝에' 난 '이슬'은 저녁에 맺힌 이슬이며, 제6수의 '밤 스이 이슬'은 밤 동안 맺힌 새벽 이슬로서, 이 둘은 자연의 순환인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슬'이라는 공통 시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제시된 시간이 자연의 순환에 조응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수와 제8수의 종장의 첫 부분인 '이 중의'는 각각 뒤에 놓인 '우국성심'과 '즐거운 뜻'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이들은 각각 풍년에 대한 기원과 농경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34 ~ 38] (갈래 복합) (가) 박두진, '청산도'/(나)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다) 이규보, '지지헌기'

(가) 박두진, '청산도'

이 시는 자연물인 청산을 통해 밝고 평화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청산은 불이 고운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이상적 세계를 상징하는데,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 세계가 오기를 소망하는 미래 지향적 태도를 드러낸다.

(나)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

이 시는 동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신비롭고 평화로운 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성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곳으로, 농부들과 당나귀들처럼 숲을 통과하는 자격을 갖춘 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골동품 상인처럼 숲을 훼손하는 이에게는 성으로의 진입이 허락되지 않고 공터만이 나타날 뿐이다.

(다) 이규보, '지지헌기'

이 글은 동국이상국전집 제23권 기(記)에 실린 이규보의 수필이다. 거처를 '지지헌'이라 이름한 이유와 관련지어,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칠 곳에 그침으로써 해를 입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그칠 곳에 그친다'라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3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산'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중심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③ (나)에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서 모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은 구름이 움직여 흔적이 사라지고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음을 표현하였으며, 여기서 '둥둥'은 '산을 넘'어가는 '흰 구름'의 움직임을 부각한다. 따라서 '흰 구름'이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 '하늘'로 향하려고 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철철철'은 생생한 기운이 가득한 '질푸른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술한 나무들'과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부각한다. ③ '줄줄줄'은 '골짜기'의 '물소리'와 '풀밭'에 엮드린 '나'의 '가슴' 속 우는 소리를 조음시키는 것으로, 앞서 표현한 '가슴이 울어라'에 '줄줄줄'을 추가하여 다시 표현함으로써 '나'의 고조된 감정을 부각한다. ④ '아른아른'은 '나'에게 '하늘'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 '하늘'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부각한다. ⑤ '총총총'은 '나의 사람'의 급히 달려올 듯한 몸짓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만나기 위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기꺼이 '달려와 와 줄'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부각한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그'는 숲에 들어가려는 목적 추구 과정에서 ㉠을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라낸다. (다)에서 '나'는 그칠 곳에 그침으로써 해를 입지 않고자 하고, 이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그'가 ㉠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에서 '나'가 ㉡으로 인해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에서 '그'가 ㉠으로 인해 상생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다. ④ (나)에서 ㉠은 '그'가 '성'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은 '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⑤ (나)에서 ㉠은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에서 ㉡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일 수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어떤 이'는 '나'가 자신의 주장에 충실하려면 '산림이나 궁곡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성시'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을 '떳떳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나'가 '푸른 산'에서 '불이 고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푸른 산'은 '벌레 같은 세상'의 현실과 대비되는

미래에 대한 '나'의 기다림이 드러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성'은 '구름' 혹은 '공기들'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농부들'이 '성 안'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이들이 '구름', '공기들'과 같은 속성을 지녀 '성'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농부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성'이 '골동품 상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로 보인다는 것은,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④ (다)에서 '나'가 '명리의 지경'에 그치는 것을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나'에게 '명리의 지경'은 자신이 그쳐서는 안 될 공간처럼 인식됨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구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지지는' '그칠 곳에 그친다'라는 뜻으로,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 자신의 본성에 맞게 그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지향을 반영한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위협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는 어쩔 수 없이 그쳐야 하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④ 글쓴이가 자신이 아직 적절하게 그치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내용은 없다. ⑤ '사람들',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 모두가 그쳐야 하는 곳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쓴이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39~42] (현대 소설) 이태준, '점경'

이 소설은 1930년대 근대화와 도시화된 경성을 배회하는 험벗은 아이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화신 백화점에서 진열장 앞을 기웃거리다가 케이트보이에게 쫓겨난 아이는 자기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모른 채 목격지 없이 떠돌다 탑동 공원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아이는 과일을 사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가며 근대화된 도시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작품은 이러한 아이의 질문을 통해 근대화와 도시화된 경성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이면에도 주목하게 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문에서는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아이의 심리와 의식을 드러내어 서사를 전개한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에서는 아이의 심리와 의식이 드러나면서도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으나 서술자의 교체는 없다. ③ 제시문에서는 간접 인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제시문에서는 서술자가 동시적 사건을 병치하여 드러낸 부분은 없다. 서로 다른 관점은 '지까다비 발의 입자'에 대해 아이와 서술자 간의 인식 차이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⑤ 제시문에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에 진술할 수 없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활동사진 기계 소리가 들렸을 때, 아이는 더 험벗은 아이를 발견하였고 그 기계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다. '남편인 듯한' 서양 남자는 아이와 더 험벗은 아이를 번갈아 찍었는데, 이때 아이가 더 험벗은 아이와 자신이 경쟁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는지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아이가 우등으로 진급은 하였으나 오른 월사금을 변동할 수 없어서 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② 아이는 조선어독본에서 팔각정을 본 기억이 났으며,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편히 쉬는 데라는 생각도 났기 때문에 기웃거리지 않고 탑동 공원에 들어갔다. ③ 아이는 자기보다 더 험벗은 아이가 '웬 양복 한 사람'에게서 사과 껍질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입안에 침기가 생기며 목젓이 늘름거렸다. 이를 통해 아이가 험벗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허기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신이 흐릿해졌던 아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활동사진 기계의 유리알이 자신을 향해 낸 소리 때문이었다.

41.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아이의 울긋불긋한 과자 껍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극락에 간 어머니를 접하는 환상을 경험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불러보는데, 이내 어머니의 소리는 사라지고 환상에서 깨어난다. 이때 아이는 강렬한 전차 소리만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전차 소리는 어머니가 등장한 환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아이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 회상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백화점 진열장에서 '사 윈 이십 전'이라는 과자의 가격을 본 후이다. ② 아이는 아버지의 불행을 떠올린 후 어머니의 비극을 떠올린다. 그러나 전차 소리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③ 아이는 과자 껍의 가격을 보고 돈이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구한 삶을 떠올리게 된다. ④ 아이는 전차 소리를 듣고 나서 정해진 목적지 없이 걷다가 탑동 공원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전차 소리가 어머니와의 추억이 어린 곳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서양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를 보고도 아이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서술자의 시각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즉 아이는 자신의 가족과 이들 가족의 구분을 낫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아이는 공원에서 실과를 보고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데 이는 화신 백화점 진열장에서 과자 가격을 보며 돈이 없어서 상품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이다. 이는 자신을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로 규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②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은 아이가 배 껍질이 라도 먹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배 껍질을 넓적한 구두발로 짓이겨서 못 먹게 하는데, 이는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아이는 배를 사서 깎아 먹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힘 즉, 돈의 가치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온전 한 놈'에 '비수 같은 의식'을 느끼며 달려드는 것은 이전과 달리 돈의 중요성을 느낀 아이가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아이의 눈에는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이 배 껍질을 짓이기는 행동과 '지까다비 발의 입자'가 돈을 팔매치는 행동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의 시각에서 벗어나면 돈을 앞세워 아이를 밀시한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의 비인간적 행동과 달리 '지까다비 발의 입자'의 행동은 돈을 앞세워 아이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도시의 비인간성에 대한 저항임을 읽어낼 수 있다.

[43~45] (교전 소설) 작자 미상, '옥란전'

'옥란전'은 늑혼 시도로 인해 발생한 혼사 장애와 가문의 위기를, 주인공 옥란을 비롯한 가문 구성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강환의 구혼을 거절한 장사운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란 일행은 가문의 가장인 장사운을 구하기 위해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주로 천자나 임금에 의한 늑혼을 다뤘던 다른 소설들과 달리, 이 작품은 부패한 환관에 의한 늑혼을 다루며 부패한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식

을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장보다는 가장이 아닌 다른 가문 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다.

4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장 학사가 '명백한 상소를 지어 켈문에' 들어간 후 강환에 의해 투옥되었고, 그 이후에 강환이 '사운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졸 수십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운 집으로' 보냈다는 점을 볼 때, 장 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환이 장 학사의 집으로 옥교자와 하인을 보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즉시 탐전에 들어가 천자에게 참소하여 송 시량을 의금부의 신문에' 부쳤다는 부분과 그 후 송 시량이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북지옥에 갇힌 장 학사가 '저 애들에게도 편지도 통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기이한 변란을 어떻게 전하겠는가.'라고 탄식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옥계가 '각각 헤어져 가다가 경성 가서 서로 만나면, 우리 대인의 신원을 알 것이고, 만일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황문 위졸이 '우리가 장 학사의 명을 받아 왔는데'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제시된 부분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A]는 강환이 옥란을 유인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 편지의 내용이고, [B]는 장 학사가 꿈속에서 옥란에게 한 말이다. [B]의 '소인의 흉계로 너를 데려오니'와 '어떻게 하더라도 도피하여 강포지옥을 면하라.'라는 부정적인 내용은, 앞서 [A]에서 제시된 '그 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혼하였으니'를 비롯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옥란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상황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A]에서 옥란의 '현숙함이 경성에 자자'하다는 부분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지만, [B]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 장 학사가 '한림학사로 출석'했다는 것과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혼'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인물의 숨겨진 내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에서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옥란 형제가 '성의 담'을 넘어 '도주'한 것은 위협에 빠진 장 학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며, 이는 <보기>에서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문에 닥친 심각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옥란 형제의 '도주'는 강환의 늑혼 시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으므로 늑혼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장 학사가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을 환관놈에게 보내리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환관놈'인 강환의 명망을 낮게 평가하여 강환 가문과의 혼사를 거부하는 장 학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장 학사가 혼사를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강환이 장 학사에게 '서촉의 친한 출생'이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강환 가문보다 권력상 약한 위치에 있는 장 학사 가문의 취약성이, 그 후 '저의 생사 내게 맡겼'다고 말한 부분을 통해 장 학사 가문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드러난다. ③ 송 시량은 투옥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위기는 장 학사가 강환의 혼사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송 시량의 투옥 후 장 학사의 투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인공 가문에 닥칠 위기가 다른 가문에서 먼저 현실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⑤ 사촌인 영진이 옥란과 옷을 바꿔 입고 수문졸에게 대신 잡힌 것은,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